



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각 장로교단 관계자들



콘서트에서 수화로 찬양하고 있는 남가주농아교회 수화찬양팀

장로교 정체성 확립하고 위상 높이자

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창립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가 창립대 대표회장으로 이정남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대표회장으로 이정남 목사, 상임회장에 김병도, 최학량 목사, 운영회장에 김정호, 민종기, 박효우, 신승훈, 양수철, 정해진 목사 등을 추대했다. 공동회장은 김영구, 남상국, 서문욱, 성종정, 엘리야 김, 이순천, 이정현, 조은철, 전재학, 최정남, 홍성관, 하태신 목사이며 부회장은 양병삼, 홍성표 목사, 총무는 이준우 목사, 부총무는 폴 리 목사, 서기는 김병호 목사, 부서기는 김성곤 목사, 회록서기는 최경일 목사, 회계는 이철 장로, 감사는 고재원, 김호, 주창효 목사, 사무총장은 김철수 목사가 맡게 됐다.

한장총은 1981년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으며 현재 20개 교단이 참여하는 장로교단 연합체다. 대표회장 유중

현 목사가 취임한 이후, 미국 4개 지역에 지부 형식의 지역 연합회를 창립하기로 공약했고 이날 첫 지부인 미국서부지역 연합회가 창립된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유 목사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파당 싸움을 하려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주에서도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높이며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지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창립총회 후 곧장 뉴욕에서 미국동부지역 연합회도 창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대표회장 이정남 목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세속화와 혼합주의, 타종교, 이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된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개인이 아닌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이므로 서부지역 연합회 역시 개인이 아닌 교단이 가입하게 된다. 정관에는 “본 연합회는 한장총 회원교단 미주지회 장로교

단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한장총에 이미 가입된 교단들 가운데 미주에도 교단이 있는 경우 그 교단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장총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 장로교단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회원이 되지 않는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 2부 창립총회, 3부 취임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효우 목사가 인도했으며 안문기 장로가 기도, 홍성표 목사가 성경봉독하고 유중현 목사가 “의로운 사람(마1:18-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동기 목사가 한장총에 대해 연혁을 소개했으며 김병도 목사가 축하하고 이준우 목사가 광고했다. 축도는 유중현 목사가 했다. 총회에서는 이정남 목사의 대표회장 추대 후 각종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최학량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취임축하 순서는 김철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유중현 목사가 이정남 목사에게 취임패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휠체어에 사랑 담아 빈곤국으로

살롬장애인선교회 콘서트 개최

살롬장애인선교회의 연례 기금모금 콘서트인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가 지난 15일(주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살롬은 매년 이 콘서트를 통해 기금을 모아 전세계 빈곤국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보조 기구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년간 39번에 걸쳐 휠체어 11,703대와 의료보조 기구 49,077점을 보낸 살롬은 올해는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한다.

대표 박모세 목사는 “후원금 200달러이면 수동 휠체어 1대와 목발 2세트를 구매해 성경과 함께 토고의 장애인에게 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

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서트의 사회는 박모세 목사가 맡았고 유명기 목사(고문)가 짧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KAM 코랄, 바리톤 강주원, 남가주농아교회 수화찬양팀, 배주는 학생, 살롬장애인선교회 찬양팀 등이 아름다운 찬양과 가곡을 불렀다. 각 순서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감동과 격려를 표현했다.

마지막 순서는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장식했으며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가 축도했다.

제37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 열린다

8개팀 참가해 찬양으로 연합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제37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를 오는 7월 22일(주일) 오후 6시 감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생수의강선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베데스다대학합창단, 오렌지미션교회 등

8팀이 참가해 찬양으로 하나된다. 이번 찬양제 헌금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웃 교회 사랑 나누기’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현미 회장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562-419-4057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컬러프린트/컬러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제출 마감

-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축복합니다” OC교협 사모블레싱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사모 블레싱 나잇이 올해도 7월 17일 열렸다.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OC 지역 목회자들의 아내들이 참석해 이민목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웃고 교제하고 치유받는 은혜를 누렸다.

1부 예배 중에는 신은실 사모의 간증 시간이 있었다. 신 사모는 “모든 집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더니 행복한 목회 내조자가 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이어 이서 목사(OC교협 회장)가 설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언약의 자녀가 되라”고 사모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된 저녁 만찬



OC교협이 사모 블레싱 행사를 열어 사모들을 위로했다.

후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선물 증정 시간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과 OC 지역 교계 지도자들, 실업인들이 헌금과 헌물을 아끼지 않아 더욱 풍성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CTS 기독교 TV와 OC교협이 희망 나눔콘서트를 개최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OC지역 미자립교회 12곳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엘비 권 기자

선교 위한 탁구대회 성황리에 개최

제14회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친선 탁구대회가 지난 7월 7일 부에나파크 중학교에서 열렸다. 이 기금은 갈보리 선교교회(심상은 목사)의 탄자니아 와타툴루 미전도 종족 선교, 멕시코 와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일본 선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대회에는 선수 150여 명이 참가해 친목을 다지고 경기에 임했으며 경기 후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회 전에 드린 예배에서는 남상국 목사(OC목사회장)가 설교하고 심상은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이호우 목사(OC교협 전 회장)와



이번 탁구대회에 참가한 이들

임덕순 장로(본지 이사장, 국제하나 사랑재단 대표)가 축사했다.

심상은 목사는 환영사에서 “여러

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앞으로 선교가 더욱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은혜한인교회에서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는 주제 아래 박순애 전도사 초청 한여름 성령집회가 열렸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 행사에서 박 전도사는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 주시고 행하신다”고 강조했다.

분당제일교회를 섬기는 박 전도사는 현재까지 부흥회만 1,500여 회 인도했으며 18세 때부터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30년째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 교도소 정신교육 강사, 국제사랑재단 홍보 대사로 섬기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방송국에 출연했으며 찰레꽃 그여자, 푸른솔 붉은집, 절



박순애 전도사(사진 가운데)가 은혜한인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대희망, 어린이 절대희망 등의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번 집회 동안 ‘내 인생의 창조자,’ ‘회개의 강물에 내 영혼을 씻다,’ ‘복있는 자의 기적 같은 축복’

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주일예배 때에는 ‘고난을 딛고 기적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선사했다.



선한청지기운동본부가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교회와 세상의 다리 되자”

선한청지기운동본부 이사장 취임 및 자선음악회

선한청지기운동본부가 창립식을 갖고 급변하는 시대에 커뮤니티와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할 것을 다짐했다. 15일 오후 4시 30분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린 창립식에서는 한기형 이사장과 김용훈, 권영신, 감다니엘, 백종윤, 이병만, 이영수, 이우형, 이주철, 임태랑 이사가 취임했다. 고문은 김진형 박사, 이정근 목사가, 고문변호사는 마동환 변호사가, 감사는 심재도 회계사가 임명됐다.

한기형 이사장은 “교회와 세상의 다리 역할이 필요한 시대에 슈바이처 같은 인물을 찾아 사회 속에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단체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그는 “Servant(봉사),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훈련(Trainning) 등 SECT 운동을 지속해 차세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예배와 2부 취임식, 3부 자선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우형 목사의 인도로 홀리클럽 회장 옥세철 장로의 대표기도, 진복일 선교사의 특별

찬양 후에 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가 녹10:25-37절을 본문으로 “다시 사마리아인”이란 설교를 전하고 이태환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백종윤 목사의 인도로 김용훈 장로가 기도하고, 박성근 목사의 환영사 후에 이사장과 이사들을 임명했다. 홍보대사로 이병상 목사, 지윤자 국악인,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황혜경, 최용순 오토하프 연주자가 각각 임명됐다. 이정근 목사의 축사, 정해진 목사의 격려사 후에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취임식을 마쳤다.

3부 자선음악회는 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유니세프 자선음악회로 진행됐다. 음악회에서는 Ol-ivenbaum 앙상블이 〈비목〉 〈Gabriel's Oboe〉, 소프라노 황혜경이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노래〉, 이병상 목사와 지윤자 사모가 〈대금 Amazing Grace〉 〈청성곡〉 〈가야금 산조와 병창〉, 또한 테너 오위영이 〈목련화야〉 〈선구자〉, 최용순 오토하프 연주자가 〈You raise me up〉 〈오토하프 메들리〉 등을 각각 연주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종용 목사와 선교팀원들이 단기선교 결과를 지난 주일에배시 보고했다.

코너스톤교회 페루 단기선교 보고

지난 7월 15일 코너스톤교회에서 페루 단기선교팀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최근 이종용 담임목사와 50명

이 페루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이들의 간증에 온 교회 성도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Hawthornechurch.us

주님이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계기독교영적각성운동본부 LA 성회

주최: 세계기독교영적각성운동본부
문의: 준비위원장 피터 홍 목사 (678-982-6123)
장소문의: 310-706-7721 (Pastor Jesse Jin)
교회약도



장소: 하톤교회 (진전호 목사 |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기간: 2018년 7월 22일(주일) ~ 25일 수요일까지(매일 저녁 7시 30분)
주강사: 에스라 목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1.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성회에 참석 후 새롭게 변화되어 사명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역함(피터 홍 목사 - Peter Hong)
2. 20년 필리핀 선교사역의 위기에서 말씀을 받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여 동남아를 살리는 선교사로 다시 섬(제임스 정 선교사 - James Jung)
3. 사역가운데 시험과 실의에 빠져 사역을 접으려 하다 이 성회에 참석하여 심령에 변화를 받고 사명을 회복하여 새로이 개척하여 기쁘게 사역함(성사은 목사)
4. 암말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음(이혜선 집사)



터키 8개 현지 교회 연합수련회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 간 터키 이스탄불 F호텔에서 연합수련회가 개최되었다. 터키 현지 8개 교회 소속 13개 민족(터키, 한국,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러시아,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미국, 필리핀), 총 2백여 명이 함께 모여 있으며 집회 후 10명의 새신자가 세례 받는 의식도 거행되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위해 미국 L.A. 근교에 위치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세 번의 은혜로운 말씀 집회와 함께 여러 민족 배경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간증을 나누는 복된 시간도 가졌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연합수련회는 한국 사역자를 통해 개최된 터키 현지인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다. 이스탄불 U교회 S사역자, 이스탄불 Y교회 C사역자, E도시 G교회 L사역자 3명을 중심으로 터키 내의 몇몇 교회들이 함께 수련회를 갖는 연합사역이다. 연합수련회가 개최된 2013년 원년에 2차례, 이후에는 매년 6월 마지막째 주에 한 차례씩 개최되어 올해로 7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Y교회 C사역자는 연합수련회를 기획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밝혔다. 첫째로, 소규모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돌파해 나가기 위함이고, 둘째로, 가정교회 수준의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터키에서 교회개척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 가능성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2013년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첫 집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 인원이 8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2백여 명에 달하는 모임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이 연합수련회를 주최하는 세 교회가 계속 동반 성장하면서 현재는 2013년과 비교하여 배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터키는 성서의 땅으로 불린다. 에덴동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젖줄기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수원이자 있는 곳이며, 노아방주가 최종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아라랏산이 터키 동부에 위치해 있고,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하란(창 11:31) 또한 터키에 있다. 신약성서에서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른 수리아 안디옥(행 11장)과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행 9:11; 21:39; 22:3)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1:1)로 살아간 곳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또한 현재 터키 땅에 속해 있다.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행 16:1-3)와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계 1:11)



이번 터키 연합수련회에서 10명의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사진 가장 오른쪽이 이상명 총장.

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드로아(행 16:6-10)가 터키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지명들 외에도 터키는 많은 성경 지명을 품고 있기에 성서의 땅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395년 로마제국이 동서로 나뉘는 후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제국과 달리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제국이 지금의 터키 땅에 세워지는데 이 제국은 1453년 오스만제국에게 망할 때까지 천년 가까이 유지되어 한 동안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비잔틴제국(the Byzantine Empire)으로 찬연한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터키는 8천만 명의 인구 중에 99.8%가 무슬림일 정도로 종교적 상황은 역전되었다. 터키 현지 교회와 선교사 협력 단체인 실라스(Silas)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의 숫자는 불과 6천여 명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의 0.0075%에 해당된다. 통계가 보여주듯 이슬람국가인 터키 내에서의 개신교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터키가 비록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거나 관대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다.

터키 개신교 현지인 성도는 1960년대부터 아주 조금씩 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선교사 2천 명에 성도 6천 명인 1:3의 비율로 성장하게 되었다. 실라스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 교회 숫자는 터키 전체에 14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있는 터키의 개신교이지만 여전히 교세는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회개척 사역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며 돌파에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합수련회 강사로 참석한 이상명 총장은 여러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터키 현지인들의 집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런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받은 터키인들이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온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소망을 보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번 연합수련회를 터키 현지어로 유창하게 인도하고 통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모습 또한 잊을 수 없다고 전하면서 이런 협력 사역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계속 확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였다.

민족적 배경과 언어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터키어 통역으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되는 연합수련회는 성령강림과 언어통일로 하나된 초대교회를 연상케 한다. 6천여 명의 터키 성도수에 비하면 2백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번 연합수련회와 참석한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 터키를 복음으로 기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길 기원한다.



터키 8개 교회 소속 13개 민족, 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수련회가 열렸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전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이나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1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웅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Torrance/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아이비 유학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로열티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3〉

물 한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참 건실하게 생겼다. 차돌같다.’ 필자가 처음 권중승 선교사를 보았을 때 들었던 말이다. 십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변함 없는 모습이다. 그는 물론그릇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언젠가 그가 KIMNET 대회에서 선교보고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한 것이 기억 난다. 대학 전공은 토목, 대학원에서는 환경공학,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 그 좋은 전공들이 하나님 마음을 받으니까 거룩하게 쓰였다.

그는 세계 미전도종족 중에 8억 명 이상이 식수가 부족하여 고통 당하는 현실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 귀한 주의 종이 그대로 받았다. 그는 기도하며 생각했다.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까? 기도 끝에 답을 찾았다.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맑은 생수를 공급하자.’ 그것이 물론그릇선교회의 창립 동기였다.

지구 곳곳에서 오염된 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이 선교회는 그 마을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공부케 하신 전공을 살려 물줄기가 있는 땅을 조사하고 수심 미터, 어느 때는 더 깊은 파이프로 설치하여 펌프를 만들고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게 생수를 날마다 선물했다. 그 사랑의 물을 받으며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알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생명의 샘터를 중심으로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들었다. 어린이에게 그들을 가르칠 교실이 필요했고, 여인들에게 성경공부를 할 공간이 있어야 했다. 이렇게 선교회의 사역은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는 사역이 되었다. 이 선교회의 소식을 듣고 여러 후원 사역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실 물이 없어 수십 킬로미터



이 상 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떨어진 강물을 퍼나르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우물을 개발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교실과 교사 자원, 성경공부를 인도할 교사 자원들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것들이 선교회의 큰 기도제목이 되었다.

물론그릇선교회가 하는 주된 사역을 소개하면, 마을 우물 설치, 펌프 수리 및 설치, 물에 대한 위생교육, 개량 화장실 설치, 가정용 정수 장치 설치, 빗물을 이용한 저수시설 확보, 수질검사, 지하수 탐사 등이다. 이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다.

오늘도 권중승 선교사와 그의 선교팀원들은 최후의 한 미전도종족이 남을 때까지 식수로 고난 받는 그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지에서 말라리아, 풍토병 등을 앓으면서도 미전도종족을 향한 사랑과 꿈을 잃지 않는 열정에 매우 감동이 되었다.

생존에 필요한 날마다의 생수를 마시며, 오지의 영혼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물론그릇선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독자들이 다 함께 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문의) 267-242-1798

www.givetodrink.org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인생의 지혜

인류는 늘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류역사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혹은 집단의 행복을 위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선악과가 너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라는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아담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이 밝아지면 자신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악과를 따 먹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남긴 인류 최초의 역사책인 “역사”에서 고대의 왕과 지혜자의 관심이 행복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Croesus)가 아테네의 지혜자인 솔론(Solon)에게 자신의 행복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크로이소스왕은 자신의 금고를 열어 황금보화를 보여주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크로이소스왕은 자신의 행복을 인정받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유의 주제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방된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Epictetus)도 행복학 선구자였습니다. 칼럼리스트 김길호 씨는 시니어 신문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행복의 다섯 가지 조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길호 씨가 소개한 플라톤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부심은 높지만 사람들이 절반만 알아주는 명예, 넷째,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연설 솜씨 등입니다. 절제미 넘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서기 79년에 발발했던 화산으로 사라진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이 발굴되면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폼페이시 어느 빵집에 걸렸던 액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그 액자에 담긴 메시지가 “이 집에 행복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들은 행복이 깃들어 있는 빵집에서 빵을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행복을 갈망했습니다.

중세 철학의 두 줄기를 형성했던 스토아학과 에피쿠리안학파의 논쟁도 결국 행복론이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절제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에피쿠리안은 쾌락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행복이

라고 주장합니다. 행복에 대한 접근이 이들을 철학적 사유와 활동을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철학의 핵심주제도 결국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행복이 무엇인가요? 얼마전 버지니아대학 오이시 연구팀은 ‘행복’에 관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1850년부터 지금까지 출판된 웨스터 영어사전의 개정판들을 토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웨스터 초기 사전에서 ‘행복’은 대체로 ‘좋은 운’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로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행복 개념은 외부 조건에 따르는 ‘좋은 운’이라는 정의에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근자에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대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삶의 만족감으로 정의합니다. 다소 애매한 정의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의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필자주)”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 미국 방문해

할렐루야축구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인교회와 성도들, 커뮤니티에 축구단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열반인 프로팀인 Anaheim Legacy FC와의 연습경기, LA Santa Ana Winds FC와도

공식 친선경기도 갖는다. 7월 25일(수) 남가주살롱교회(김준식 목사)를 시작으로 29일(주일) 북가주 상향제일장로교회(박용준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 8월 1일(수) 크로스웨이교회(이찬우 목사)를 거쳐 5일에는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를 방문한다. 방문한 교회에서는 단장 이영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축구단의 특별찬양도 이어진다. 이들은 지난 7월 초에는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지역 축구팀과 유소년을 초청해 친선경기를 갖고, 청소년 센터와 지체장애 아동 센터를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도 했다. 문의) 714-904-0691

미주비전교회 VBS 열린다

애나하임에 소재한 미주비전교회에서는 7월 26일(목) 오후 6시부터 2박3일 동안 ‘In God, we trust’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연다.

이 여름성경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속에 숨어있는 ‘순종’이라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이순희 목사 초청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LA 백송교회가 주최하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한국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주일에는 오전 11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전 11시와

미주비전교회는 매년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며 평균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다. 티셔츠와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714-821-9900

오후 7시 30분 매일 두 차례 열린다. 이순희 목사는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치유와 은사, 말씀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213-674-7966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과테말라 화산사태 모금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사태
구호금 모금 중입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남가주목사회(회장 샘 신, 총무 양경선)가 후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에게도 거리기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힘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으로 허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기중심에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를 보장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생활은 육신이 세상 쪽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치르기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어드리기를 중심으로 소원을 삼고 힘쓴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허욕을 따라 혈기와 정욕으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성령의 인치신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일삼고 지옥 길을 재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도 죄값은 지체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또 죽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괴롭히며 죽어도 죄 값이 남아서 윤희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시달리게 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사는 목적과 방법도 바꾸기 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6:2-6에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해서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릇으로, 지체로 사용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을 얻어 영혼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며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전혀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거리까지 않게 하고 전혀 약점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은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환란, 궁핍, 곤란, 매 맞고 망신 당하며, 제대로 잠도 못자고 끼니를 찾아 먹지도 못하더라도 자신의 영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육하고 혈통고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도우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맡겨진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잘못 되면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또 연약한 심령은 호소하고 달래고 권면하면서 기어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해 주려고 책임목회의 사명에 자기 생애를 쏟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때론 감정도 상하고 오기와 혈기가 솟아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쓰실 도구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영광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으며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늘소망의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듭난 이유이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더니 실패했고,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위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어드리려고 회개도 했고 거듭나기도 했다면 지금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은 우리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을 대신 몸소 치루시면서 죄인의 발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들이 밤낮 기회를 엿보며 음모를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씨게로 싸서 그 모든 사망의 음무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며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환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디모데후서 3:12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소굴이라서 더 돋보이는 믿음으로 살고 더 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환란과 행패와 고통과 훼방을 당하게 마련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자가 잘못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양떼들도 그를 본보기 삼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더욱 애쓰며 살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일도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깨끗한 믿음 지키는 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은 목사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며, 진실로 거듭났으면 이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위탁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행통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예수님 뜻대로 동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차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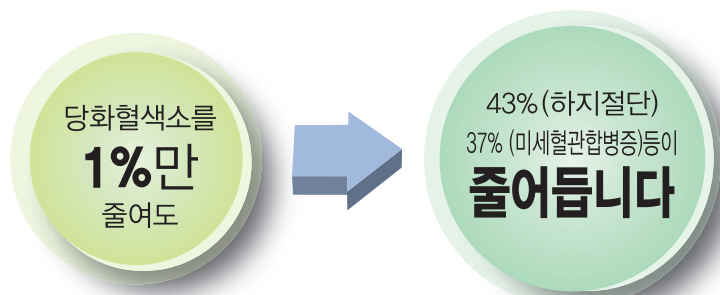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시애틀 중앙침례교회 임직식 후 단체 사진

시애틀 중앙침례교회 임직식 열려

“오직 주님 섬기는 일 마땅하게 생각해야”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담임 제임스 황 목사)는 지난 8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안수집사 임직식을 갖고 제이 장(Jay Chang) 씨 및 존 황(John Hwang) 씨를 안수집사로 세웠다.

이날 임직식에서 제임스 황 목사는 “내가 여기 있다(Here I am, 디모데전서 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 목사는 “침례교회는 장로(목사)와 집사 두 종류의 안수가 있는데, 목사를 장로(Elder)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황 목사는 “집사의 직분을 받을 사람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칭찬을 받은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집사의 직무는 장로(목사)를 도와 교회의 일에 협력하는 것과 구제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집사의 직무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것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며 “오늘 안수 받을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일구이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 것이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 것이며, 복음의 비밀

을 가진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목사는 또 “사명자는 오직 순종으로 직분에 임해야 한다. 그 순종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며 “집사 직분자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직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애틀 중앙침례교회(700 SW 320th St. Federal Way, WA 98023)는 한 어권 교회로 시작해 지금은 영어권을 중심으로 2세와 3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는 황선규 원로목사가 1대 목사다. 그는 31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지금은 GSM 선한목자선교회 대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제임스 황 목사는 황선규 목사의 둘째 아들로 시애틀 중앙침례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날 안수집사(장로) 임직을 받은 존 황 집사는 황선규 목사의 첫째 아들로 GSM 선한목자선교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폴 원 기자



김운용 박사 초청 말씀잔치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혼 살어나”

지난 7, 8일 양일간 주성령교회(담임 김영복 목사)에서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석교학 교수인 김운용 박사를 초청한 말씀잔치의 끝에는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넘쳤다. 주일(8일) 오후, 여선교회 헌신예배와 함께 드려진 마지막 말씀집회에서 김운용 박사는 ‘벼랑 끝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0-16절을 본문 삼아 말씀을 전했다.

김 박사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이 땅은 전쟁해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

었다. 어떻게 모세의 리더십 없이 잘 훈련된 원주민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했다. 김 박사는 “말씀이 들어야 영혼이 살아난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성돼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믿음이 생긴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는 통성기도와 결단으로 마무리됐다.

윤수영 기자

시애틀 한인교회들 연합해 단기선교

시애틀 우리교회, 주안약교회, 커클랜드 중앙장로교회, 커클랜드 트리니티교회, 안디옥교회, 시애틀 영락교회 등 시애틀 지역 6개 한인교회가 오는 7월 25일(수)부터 29일(주일)까지 메타와 지역에서 연합 단기선교를 진행한다.

메타와 지역은 멕시코 사람들이 농장 일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미국 영토지만 문화나 인구 비율로 보면 멕시코와 닮았다는 뜻이다. 멀리 있는 멕시코에서 선교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찾아온 멕시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메타와 단기선교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을 만큼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시애틀 영락교회가 시작한 메타와 선교는 지역 한인교회들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메타와 단기선교는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VBS를 개설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조전도(가정방문)를 통해 전도된 사람들을 지역교회와 연결시키는 사역을 한다. 또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나누며 전도하는 맥코 데이 및 의료와 미용 사역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배명현 목사(시애틀 영락교회)는 “올해도 시애틀 지역 한인교회가 메타와를 가슴에 품고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연합 선교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교회의 담을 넘어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감동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며, 멕시코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며 “메타와 지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425-770-5591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비침중학교 / 토요새벽 - 17와 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박멸하기며,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음-사이드)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분당) 저녁 8:30 금요일예배 (분당)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박호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6:00 4부예배 오후 6: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관,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강화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 오전 8:00 중등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인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참람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으로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us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령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등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인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장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별리채들 Valley Chapel MP채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63-5887 T. (626)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참석한 성도와 시민들이 쿼어축제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성년자 등 시민 권리 침해” 쿼어축제, 강력 규탄 4만 명 참석 ‘동성애 쿼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개최

‘동성애 쿼어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14 일 오후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쿼어축제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맞은편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민대회는 동성애 확산을 막고,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진행됐다. 주최측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성애를 자신의 양심·종교에 기해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고 반대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동성애 교육·수용·지지를 강요하고 전통적 가정제도까지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말을 전한 공동대회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자들 개개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서울광장에서, 쿼어축제는 이름으로 선정적인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으며, 자녀교육이 황폐화되고 군대와 사회가 문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의 미래가 더욱 염려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위험성 높은 동성애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동성애 축제로 동성애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쿼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격과 영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탈동성애’만이 참된 인권운동임을 공포한다”며 “때문에 탈동성애자 운동과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려 한다. 동성애 쿼어축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존중한다. 그러나 심각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동성애에서 탈출하자”고 권면했다.

박경배 목사(대신 부총회장)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쿼어축제로 말미암아 건전한 성품속과 성도덕 관념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 자명하다”며 “나아가 에이즈 확산 등 보건적 문제와 군 형법 92조의 6 폐지로 인한 안보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과 서울시내 곳곳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판매하고, 음란한 행위로 수많은 법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하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쿼어축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보건적 문제로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바, 우리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탈동성애 운동을 통해 그 분들의 재발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대회를 통해 가정과 사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창달하고,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가정 문화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계연합 예배 및 기도회가 진행돼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설교했으며 합심기도와 축도, 구호제창 등이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30주년 맞는 선교한국 대회 “한국선교의 3세대 도전 헌신 기대”

한국 청년 학생선교 운동의 발전에 앞장서 왔던 선교한국 대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1988년 8월 8일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린 선교한국 대회는 올해 16회 대회를 8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주최는 대학생 선교단체, 파송 선교단체, 지역 교회로 구성된 선교한국 2018 조직위원회가, 주관은 IVF(한국기독학생회)가 맡았다.

선교한국 대회는 한국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제자의 삶과 하나님의 선교에 도전해 온 청년 학생 선교전문대회다. 국내에서는 15회에 걸쳐 총 6만2,28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3만5,576명이 장기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헌신카드를 제출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시아권에서 주목받으면서 선교한국을 모델로 한 아시아권 선교전문대회가 활성화되었고,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올해도 자국 선교 운동을 섬기는 20여개 국 150여 명이 해외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선교한국 2018 대회의 주제는 ‘Re_’이며, 매일 ‘Re_call’, ‘Re_Bible’, ‘Re_tune’, ‘Re_build’, ‘Re_start’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의 부르심을 ‘재발견’하게 하고, 청년 대학생들만 선교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 기존 선교사, 목사 등 사역자 모두를 다시 헌신시키고 선교의 삶으로 초대하는 ‘재헌신’,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재창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담아 각 프로

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교대회의 외형적 틀에 변화를 주었다. 3일간 진행되던 선택강의를 8월 7일 하루에 총 75개 강의를 3등분으로 나눠 진행해 집중도를 높였으며, 8-9일에는 관심 있는 선교 영역을 능동적으로 배우는 ‘다이나믹 배움터’와 ‘미셔널 멘토링’을 준비했다. 오전 집회의 성경강해는 24명의 신학자, 목사, 선교사가 선택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미셔널 바이블’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소그룹 성경공부 시간은 다시 부활했고 선교단체 박람회도 전보다 밀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8일 오전 집회의 ‘글로벌 미션 트렌드’는 세계 선교의 흐름과 필요를 살펴보고, 9일 오전은 향후 10년간 주목할 한국선교의 주요 이슈를 보고할 계획이다. 저녁 집회는 패트릭 평, 이현모 침례신학대학교 교수가 선교의 본질과 성경적 당위성, 선교적 삶과 사역을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전하고, 마지막 저녁집회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한국선교의 3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헌신의 자리에 초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회 대회가 개최된 날과 동일한 날인 8월 8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저녁집회는 30주년 특별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교한국 의 역사를 기념하고 남은 과제를 확인하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헌약문을 낭독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mission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보수 대법관 후보 지명에 교계 “환영” “수백만 기독교인이 캐버니 위해 기도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 후임자로 브렛 캐버니(Brett Kavanaugh) 판사를 지명한 후 그렉 로리, 잭 그레함 등 미국 교계 지도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0일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를 신뢰할 수 있다”면서 미 상원이 지명을 확정하는 것을 연기하지 말 것과 시민들에게 캐버니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캐버니 판사가 임명된다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맡게 돼 낙태와 동성애 등의 민감한 사안에 보수적인 입장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텍사스 플라노 주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의 잭 그레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니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브렛 캐버니 판사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대통령이 캐버니를 지명한 것은 그간 해 온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캐버니 판사와 그의 가족 및 다른 모든 재판관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역시 환영과 축하의 뜻을 밝히며 “진보주의자들 혹은 사회주의적 좌파들은 이같은 결정에 격분했을 것이다. 또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정의가 이 나라를 강탈하려는 좌파들의 방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오래 기다려온 기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면서 “캐버니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캘리포니아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쉽 교회의 선임 목사인 그렉 로리 목사는 “모든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제도를 신뢰하면서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캐버니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연방대법원은 자유를 옹호하거나 오용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보호했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더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의 양심의 권리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셔널 히스패닉 크리스천리더십 컨퍼런스의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역시 캐버니의 지명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성과 성품으로 널리 존경받는 법학자인 캐버니 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미국 히스패닉계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로드리게스 목사는 “상원 인준 통과시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길 바라며 대다수의 미국인이 시의 적절하고 정직한 인준 과정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 또 다른 강렬하고 분열적인 정치적 투쟁 대신에, 인준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와 그 제도의 힘에 대한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셰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의 데이빗 제러마이어 목사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과 또 다른 성취된 약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캐버니 판사는 창안자가 의도한 대로 헌법의 완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전주의자’(originalist)로서 그의 임명은 미국의 첫 번째 자유가 적어도 다른 세대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라고 평가했다.

미국 보수단체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론자’를 지명하기로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니 판사가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믿는다. 법정에서 철학적인 접근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없애려는 세속주의자들의 전장이 되었다. 캐버니 판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저항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기독교언론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최고 경영자(CEO)인 제리 존슨 대표는 “캐버니 판사의 지명이 확정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슨은 성명서에서 “캐버니 후보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미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법 철학을 보여준 탁월한 법학자로서 민주당의 인준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한 인도 여인의 모습(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인도 기독교인 모임 도중 공격받아

힌두 근본주의자들 35명 들이닥쳐 참석자들 공격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던 중 외부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라이카시푸르라는 마을에서 열린 기도모임에 35명의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약 1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7월 2일 발생했으며, 해자들은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막대기로 공격하고, 공중에 총을 쏘기도 했다. 또 사람들을 공격할 뿐 아니라 가구와 음향장치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로 지어진 오두막에서 약 5년 동안 기도모임을 인도해 온 란 쿠마르 고탐(42) 씨는 IC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도모임에서 발생한 공격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이들이 팔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엄격한 인도헌법 아래, 우리 중 6명을 상대로 잘못된 허위

사실이 기록됐다”고 말했다.

고탐 씨에게 부과된 혐의는 폭동과 폭행, 그리고 ‘종교나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여 어떠한 계급의 종교적 분노의 감정을 자극한 악의적 행위’와 관련돼 있었다.

그러나 고탐 씨는 “우리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평화롭게 기도하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도모임에 참석한다. 종교 전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런데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도모임에 와서 치유를 받는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기도에 참석하는 이유”라며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ICC의 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스타크는 “인도헌법 제25조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주장하고, 실행하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5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단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힌두 급진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지난 2일, 이 권리는 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티스트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람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 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8: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8:00 설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회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양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와 대표 오독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록일보, FHM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213) 842-7079 JAY LUM



고독한 글쓰기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요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자신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건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홀로 있음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음은 홀로 있기 위함입니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줄 안다는 것은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떤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의 홀로 있음은 세상 사람들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홀로 있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

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음은 거룩한 고독입니다. 고독은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독의 고통을 통해 참된 부요함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독은 고통스럽지만 놀라운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저의 글쓰기는 고독의 글쓰기입니다. 고독은 침묵과 아주 친밀한 친구입니다. 고독의 부르심은 침묵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독을 사랑하는 까닭은 고독은 고요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요함은 평강을 낳습니다. 저는 고요한 시간에 깊은 평강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저는 고독한 마음을 통해 영감을 얻습니다. 고독한 마음으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고통 속에 담긴 환희를 보게 됩니다. 상처 속에 담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픔 속에 담긴 회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독을 통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고독을 통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독을 통해 고상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마워합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아 말씀을 준비하고, 글을 씁니다. 외로움, 홀로 있음,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마워 하십시오. 고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 세우기



이 효 정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델은 엄마이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명령한다(창3:16; 엡5:22-33).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는 권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는지 생활 속에서 배운다.

셋째, 부모는 섬김을 통해 권위를 세워야 한다(마20:25-28). 많은 부모들이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고 임의로 자녀를 주관하면서 부모의 권위나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와 힘과 지혜를 주신 목적은 약한 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도우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섬긴다(물리적 섬김). 사랑을 전 달하고, 자녀를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심리적

섬김).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크리스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삶의 원리를 성경에 입각해서 가르친다(영적 섬김). 부모가 자녀를 영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섬기며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진정성을 가질 때 세워진다(롬12:3). 부모는 항상 옳고 잘한다는 등식을 버린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부모는 불완전하며 실수할 수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과한 후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어진다.

크리스천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부모와 차별화된 양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인식하고, 가정에서 권위와 순종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를 섬기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박 성 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니다. 그때 그는 농장에 머물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물리학 최대의 발견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리학과 사과 나무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실험실에 묻혀 사느라 보지도 않았을 한 그루의 나무가 인생의 위대한 기

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역경에 처해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려워 하거나 의기소침 해지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자신의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 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기뻐하라고 외쳤습니 다.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살롬!

개론서가 무려 1,312쪽 신약의 역사, 문화, 신학

유진 보링 교수의 <신약개론>

“신약성경은 기독교 성경의 일부 분-그러나 단지 일부분-이 되었던 초기 기독교의 글 모음집이다. 신약 성경 페이지를 여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 즉 절정의 장면을 향해 나아가는 드라마의 마지막 막의 두 번째 막인 우주와 모든 인간 삶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다(제1장 ‘신약성경이란 무엇인가?’ 첫 부분).”

1,312쪽에 달하는 ‘개론서’가 출간됐다. 크라운 크기(18.4*25.3cm)에 두께만 5.5cm, 무게는 2kg에 달하는, 유진 보링(M. Eugene Boring)의 <신약개론: 역사, 문화, 신학(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Literature, Theology)>이다. 원서로도 760쪽을 넘겼다고 한다.

한국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의 저자는, 서구 신약학계에서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한다. 저자는 1935년 태어나 밴더빌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텍사스크리스턴대학교 브라이튼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의 저서는 국내에는 <요한 계시록 주석(한국장로교출판사)>만이 번역돼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부활하신 예수의 어록: 공관복음 전승에 나타난 기독교 예언>을 비롯해 베드로전서, 마가복음, 데살로니가전후서 주석을 썼다. 이 <신약개론>은 저자의 교수 경력 45년째를 맞는 2012년 출간된 것이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신약성경은 개념과 영감이 넘치는 종교 원칙을 담은 책이 아니라, 예수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던 그분의 제자들의 생애 안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책(역사서)이다”, “신약성경 연구는 실제적인 비평 방법을 요구한다”, “신약성경은 신앙과 신학의 책이다”, “신약성경은 본질적으로 서신과 복음서로 구성돼 있다”, “신약성경은 내러티브 하부 구조와 신학이 있다”, “신약성경의 신학은 텍스트에 대한 통시적 설명으로 잘 이뤄져 있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등의 관점 아래 초보적인 학생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6명의 역자 중 하나이자 감수자인 류호성 교수(서울장신대)는 이 책의 특징으로 △역사적인 측면 강조 △문화적·신앙적 측면 강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와 그림, 도표 수록 △방대한 내용과



신약개론: 역사, 문화, 신학
유진 보링 | 류호성 외 역
CLC | 1,312쪽

자세한 설명 △목회 현장을 고려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방대한 내용’에 대해 “저자들이 ‘보링(Eugene Boring)’이듯, 독자들이 ‘보링(boring·지루함)’을 느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진리 탐구를 위해 기쁜 마음을 갖고 신학의 풍성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신약개론서들은 역사적·신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정작 신약성경 27권의 내용, 곧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며 “저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성경 27권 전체 내용에 대한 ‘주석적·신학적 개요’를 전함으로써, 작은 주석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삽화·도표 목록과 약어표를 포함한 목차만 20쪽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신약성경이란 무엇인가, 제2장 형성: 교회의 책으로서 신약성경, 제3장 본문 비평: 필사본에서 전자 텍스트까지, 제4장 칠십인 역에서 NRSV까지: 해석 없이는 어떤 번역도 없다, 제5장 해석된 신약성경, 제6장 헬라 세계 안에서의 신약성경, 제7장 헬레니즘 세계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교, 제8장 유대교 안의 예수, 제9장 예수에게서 바울로 등 특색 있게 구성돼 있다.

추천사를 쓴 허주 교수(아신대)의 말대로, 1세기 그리스-로마 및 유대교의 역사-문화-사회적 정황의 한 복판에서 신약성경을 역사적 문서로 추적하고 평가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허주 교수는 “신학적 입장이 한국 개혁신의 내지 복음주의 노선과 결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내에 소개된 그의 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0장부터는 본격적인 권별 개론이다. ‘역사적 문서’임을 강조하듯,

저자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바울의 생애와 서신 개론을 시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등을 소개한 후 ‘목회 서신과 바울 저작 논쟁’에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이야기한다. ‘로마와 전승의 통합’에서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이후 야고보서와 유다서, 베드로후서를 개관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음서를 다룬다. ‘예수의 이야기에서 복음서의 이야기로’부터 ‘복음서의 장르’ 문제도 짚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언급한 후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공동체’의 서신들을 해석한다. 책의 마지막은 ‘제28장 결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이 장식하고 있다.

저자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앞선 내용에서 제시된 일종의 역사적 연구는 신약성경이 처음 백여 년 동안 교회에서 발생된 개별적인 기독교 글들로부터 선별된 것이며, 이는 초대 기독교 안의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자료, 그리고 다양한 문서들의 기록 시기는 알려지지 않거나 논쟁이 된다. 모든 글들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의 실패와 저자들의 고대 세계관을 공유한다.”

분량과 크기에 압도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수 있도록 목차가 자세하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다. 평소 성경에 대해 또는 성경 내용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과 각 권이 쓰여진 배경 등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역사비평적 입장이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약은 교회의 책’이라는 입장이어서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

한편, 이 책을 번역한 류호성 교수는 서울장신대에서, 왕인성 교수는 부산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김선욱 교수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겸임교수이며 배성진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중이다. 우성훈 교수는 성결대 신대원 외래교수다.

이대웅 기자

성혁명? 족자카르타?

동성애 배후의 사상과 전략

박광서 박사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박광서
누가 | 213쪽

요즘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동성애의 배후에 있는 사상과 전략 등을 치밀하게 파헤친 책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누가)>가 출판됐다.

“성혁명, 성정치, 족자카르타 원리(YPs), 성주류화(GM), 성적지향(SO), 동성애, 젠더, 성소수자, 낙태, 혐오, 인권, 자유, 평등, 연대, 사회구성체론,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구조주의, 비판이론, 헤게모니, 진지전, 기동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동성혼 합법화”

도대체 이런 단어들은 각각 무엇을 뜻하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왜 동성애를 말하면서 좌파나 우파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기독교와는 또 무슨 관계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쉬우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측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가 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를 다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공산사회의 도래를 꿈꾸던 좌파 진영에 큰 좌절을 안겼다. 이런 때에 니체와 프로이트는 좌파 진영 사람들에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인간 중심의 사고와 억눌린 욕망의 해방은 마르크스 사상과 맥을 같이하기에 좌파 진영은 재기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탈기독교, 절대가치의 제거, 그리고 철저한 인본사상은 ‘동성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스펙트럼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산주의냐고 항

변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사라질 수도 있으나 공산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공산주의는 종말의 때가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 대부분은 무지하거나 알아도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동성애자들의 세 가지 공세 방법을 의학적 공세, 법적인 공세, 신학적 공세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후 마르크스 사상을 거쳐 글로벌 성혁명과 한국 좌파의 친동성애, 친이슬람 전략으로까지 나아간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추천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동성애의 배후 사상과 실제,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라며 “동성애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 이 책이 건강한 사회와 한국교회를 지키는 사상의 지침서요, 필독서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원평 교수(부산대학교 교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본 저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았다”고 이 책을 추천했다.

이윤희 교수(에스더기독교운동 대표,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고 숙지해야 할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라며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책은 동성애를 막아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좋은 책”이라고 했다.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는 “이 책은 마르크스즘을 기초로 한 좌파사상의 변이적 흐름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친절함도 있다”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족자카르타 원칙’이라는 새로운 전체주의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저자 박광서 박사는 고려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각각 공부했으며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진영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영 / 업 / 시 / 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MATRIX
SHAFTS

FOURTEEN
The Official Shaft Fitting Golf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물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학살 기념관 야드 바 켄의 외관



기념관 내의 전시물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2)

6백만 유대인 학살의 슬픔, 야드 바 켄

역사적 아픔의 장소

서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기리는 하나의 명소가 있다. 그곳은 바로 야드 바 켄이다.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수없이 죽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의 이름을 6백만 학살 기념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헤젤 국립묘지와 연달아 있는 이곳은 유대인들의 처절한 현대 고난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 이 기념관은 현대식 방주 모양으로 건축되어 개관되었다. 이 기념관 안에는 1932년부터 시작된, 나치에 의한 인종 대학살의 장면들을 주요 사진들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기록영화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현대사의 비극에 만나게 된다. ‘어떻게 저런 자료들이 입수되었을까’ 하는 의아

심부터 ‘어쩌면 저리도 잔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왜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잔인하게 6백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였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유대인들에게 전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빌려주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죽었다는 이유가 있다. 또 히틀러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어머니를 박해하고 버려서 그 복수로 했다는 설도 있다. 당시에 교황이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교리대로 히틀러와 한통속이 되어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설도 있다.

다양한 전시물과의 만남

어찌되었든 1932년에 시작해, 1945년 1월 27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인종청소라는 미명하에 6백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 인간의 광기,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20세기 인류의 최대 치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진 중에 산 사람들을 생체실험하는 장면이나 죽은 사람들을 불도저로 구덩이에 밀어넣는 장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뒤에서 장총으로 쏘는 장면들은 이방인인 우리가 볼 때도 치가 떨리는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전시관 마지막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원형 속에 전시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수록된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전시관 밖으로 나가면 홀로코스트 예술관이 있다. 피카소가 흠여진 그림과 박해, 귀환과 신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박해를 중심으로 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충혼관이 있고 좀 더 나가면 충혼탑을 만난다. 그곳을 지나면 어린이 추모관이 있는데 캄캄한 장소에 촛불이 켜져 있고 스피커에서 죽은 아이들의 나이와 이름들이 울려 퍼지면 기분이 울적해진다. 어린이 추모관의 입구에 있는 어린이 얼굴은 ‘우지’로서 학살당한 어린이 중 한 명이다. 그의 부모가 자녀를 추모하면서 이 건물을 세웠다 한다.

추모관에서 나오다 보면 1979년에 만들어진 ‘코르첵(Janusz Korczak) 선생님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조각 작품을 만난다. 코르첵 선생은 두려움에 떠는 어린이들을 가슴에 안고 안정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환난 만난 성도들을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 외에도 이 역사박물관은 야외 조각공원이 있어 조각을 통하여 이산의 아픔과 힘없는 민족의 고통, 박해받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념관은 무료이며 언제나 누구에게나 정한 시간 안에 개방되어 있다. 다만 자료 보존 차원에서 기념관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소란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의 입장료는 없지만 기부금은 받는다. 일요일에서 수요일은 오후 5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입장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역사를 기억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이곳에 쓰여 있는 위대한 격언이 있다. “망각은 패망에 이르고 기억은 영원에 이른다.” 그렇다. 오욕의 역사라도 잊지 말아야 하며 다투라도 사과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를 잊게 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계속>



학살 희생자들의 사진



코르첵 선생님과 게토의 어린이들



나치에 의해 자행된 인종 대학살을 담은 사진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 (진리의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미주장로신문
THE ELDERS PRESS OF AMERICA

창간 제4주년 기념

감사예배

● 일시 : 2018.7.21.(Sat) 10:00

● 장소 :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272.6031

미주장로신문사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william2wt@gmail.com. www.jangro.kr. 213.284.1212

개척 비결 아닌 말씀과 경건의 삶 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가 지난 18-19일 양일간 서울 신도림동 예수비전교회(담임 도지원 목사)에서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18세기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을 주도했던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도지원 목사는 콘퍼런스 취지에 대해 “에드워즈는 진리와 경건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들 중 하나”라며 “그의 설교와 목양은 진리에 대한 피상적 설교와 경건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 조나단 에드워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추구

도지원 목사는 첫 강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에서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개척의 비결이나 성장의 방법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경건의 삶”이라며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목회적 수완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진리와 함께 그것과 일치하는 경건에서 나오기 때문(딤후 2:15-16)”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목사는 “이런 점에서 진리와 경건에 힘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은 진리와 경건이 종종 무시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에드워즈의 글은 교리적 무관심에 빠져 실용주의와 성공주의를 좇고 있는 이들을 일깨워, 그들이 진리와 경건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설교와 목양에 힘쓰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설교자, 부흥사, 신학자, 철학자, 주석가, 선교사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겨 연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설교자와 목사로서의 연구는 다소 소홀해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20세기 후반 칼빈주의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철학적·학문적 면보다 신학적·목회적 면에서 에드워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파이퍼”라고 소개했다.

도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그가 남다른 근면과 열심으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한 점”이라며 “그에게 경건과 진리의 지식은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삶에서 드러난 경건

의 권위로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힘 있게 전했고, 그 결과 두 차례 팔목할 만한 부흥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 교리가 교회 성장 방해? 하나님의 영광 아는 것

또 “비록 그에게도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나타난 한계와 도덕적 결점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과 목회 사역에서 일관된 자세로 진리와 경건을 추구했다”며 “이 점에서 그는 오늘날 목회자를 위한 중요한 본보기”라고 했다.

도 목사는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둘째 날 강의에서도 “교리는 복잡하고 파분하며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고, 거기에는 교리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교리와 삶은 하나로서 분리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개혁은 교리의 재발견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가능케 하신다”고 강조했다.

◆ 부흥의 신적 주권성 인정하되 성경적 방편들 부지런히 활용

이후 첫날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관’을 주제로 이상웅 교수(총신대)는 “우리는 부흥(revival)과 부흥주의(revivalism)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부흥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선물인지, 정해진 수단들을 활용함으로 일상적인 반복이 가능한 것인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흥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이해하는 전통은 미국 1차 대각성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를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 대변해 온 입장”이라며 “이와 달리 2차 대각성 때 활동한 부흥사 찰스 피니(Charles C. Finney, 1792-1875)는 부흥을 기적이나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일이라 보는 전통을 강하게 유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피니의 부흥론은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부흥론의 표본이 돼 버렸지만, 이는 그의 알미니안적 신학사상에 근거한 것이기에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2차 대각성 기간(1790-1830)을 고찰한다 해도, 피니나 그를 지

지하는 자들과 달리 에드워즈 노선에서 주권적인 사역을 했던 인물들이 더 많았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에드워즈에 의하면 노샘프턴 부흥이나 1차 대각성은 사탄 역사나 인위적 부흥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공동체와 지역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위대한 부흥 사건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전조 내지 서곡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가장 강력한 신적 역사였다”며 “다만 사탄이 틈을 타서 여러 광신주의적 오류들을 만연케 해 반부흥론도 대두됐지만, 에드워즈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부흥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진하게 되는 것이라 보았고, 개인들은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나누주시는 거룩함에 동참하면 공동체적으로는 영적 생동감을 풍성하게 누리고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개혁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며 “부흥을 진작시키려면 부흥을 반대하지 말고 적극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들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상웅 교수는 “에드워즈의 이러한 실천적 권면들은 부흥주의자들의 인위적 방법론과 혼동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부흥의 신적 주권성을 인정하되 성경에 지명된 여러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며 “21세기 우리에게도 에드워즈는 여전히 표준적인 부흥론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이드 존스의 권면대로 에드워즈는 현재도 적실성을 가진 부흥의 신학자임을 인정하고, 부흥에 관련된 에드워즈의 여러 저술들을 정독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진정한 설교 객관적 말씀과 주관적 경험이 통합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주제로 발표한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는 “20세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참된 설교에 늘 두 가지 기본적 요소가 공존한다고 믿었다. 즉 논리와 불, 이성과 감성 혹은 진리의 빛과 열이 설교에 함께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설교에서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과 주관적인 사람의 경험이 통합된다. 효과적인 설교란 언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비전교회 제공

제나 이 두 가치를 적절하게 결합시킨 결과”라고 했다.

박 목사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대한 생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청교도들의 영향이었다. 그중에서도 에드워즈만큼 그의 설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다”며 “그는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하고,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했다. 그가 에드워즈를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에드워즈가 위대한 신학자인 동시에 ‘마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에드워즈는 종교의 본질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다고 보았고, 종교가 아무리 머리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전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는 “참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실존적이고 살아있는 만남을 추구해야 하는데, 에드워즈야말로 이러한 경험적인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에드워즈는 ‘마음의 감각’을 신학적 주제로 삼아 평생 탐구해 나갔다. 그가 진실로 추구한 것은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을 어떻게 언어를 초월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였다”며 “에드워즈는 이를 위해 매우 정성을 기울여 말씀을 준비했고, 단어 하나 하나와 표현까지 섬세하게 신경썼다. 할 수 있는 대로 회중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자극하고자 신학과 수사학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 설교는 결국 성령의 자비로운 배부심에 달려

박 목사는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서 에드워즈가 원했던 설교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전달되는 설교의 진정한 효과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설교자가 자신의 언어로 어느 정도 회중의 지성이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어떤 인간의 언어 혹은 수사학의 화려한 기술로도 사람의 영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순 없다. 듣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성령의 자비로운 배부심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박완철 목사는 “에드워즈는 이를 알았기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다. 우리는 그가 장시간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연구실을 경배하는 제단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처럼, 쉬지 않고 감탄하는 기도(ejaculatory prayer)를 드렸다. 그가 말하는 경험적 종교란, 다분히 그 자신의 경건생활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설교란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 따라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설교자에게 체험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될 때 청중도 동일한 말씀체험을 하게 된다. 이럴 때 설교는 비로소 말씀 사건(Word-event)이 된다. 우리도 설교는 준비부터 전달까지,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래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 모조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일에 먼저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온갖 세속 사상과 거짓 종교로 가득 찬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 사역자를 찾고 계신다”며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은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고 능력 있게 전달하여 시대를 깨울 설교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다.

이런 콘퍼런스에서는 이 외에도 조현진 교수(한국성서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해석’, 양나홍 교수(고신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생활’, 서문강 목사(중심교회)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 등을 강의했다.

이대웅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2-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u.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u.edu
www.chongshinusae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믿음의 가문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2)- 김광식 장로, 김사정 권사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다. 기자가 이 인터뷰 기사를 위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듣는 것이요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다. 김광식 장로와 그의 아내 김사정 권사를 만나 삶을 듣고 신앙의 향기를 느낀 시간은 행복보다 더 좋았다. 인터뷰를 끝내고 기자가 기도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 교회, 성도, 목사... 누구에게도 분노나 원망이 없는 삶의 고백들... 진주처럼 아름다웠다.

기자는 김 장로와 대화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조심스럽게 살다 하늘나라에 가신 기자의 아버지를 추억했다. 꾸밈없는 미소, 소박한 소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열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선하고 착한 마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글을 쓴다.

독립운동가요 순교자인 할아버지

김광식 장로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김 장로의 할아버지 故 김석창 목사는 한국교회사에 자주 등장하는 순교자이시다. 김석창 목사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살다가 결혼한 후에 온 가족과 함께 선천으로 이사를 하여 미국 북장로교 위대모(Rev. Norman C. Whitmore, 魏大模) 선교사를 만나 전도를 받고 그 길로 부모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감동받은 위대모 선교사는 김석창에게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진학해 교회지도자가 될 것을 권유하였고 김석창은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한다.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기 직전인 1911년 3월 제4회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생이 되었다. 평북노회에서 그를 졸업과 동시에 선천남교회(宣川南教會)를 개척, 설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김석창은 그해 가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이 개척한 선천남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김석창 목사는 청년 시절부터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가 관계하고 있는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1919년 3.1 민족독립운동이 비밀리

에 전개되고 있을 때, 김석창 목사는 신성학교 교사이면서 자기 교회 교인이었던 홍성익, 김지웅, 양준병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의논하였다. 선천에서도 이미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제 경찰은 선천지방 만세운동이 김석창 목사의 주도였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김석창 목사를 요주의 인물로 특별 관리했다. 그러던 차에 1920년 4월에는 신성학교 출신인 박치의가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일제 당국은 김석창 목사가 연계되었다며 김석창 목사를 끌고가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했다. 결국 김석창 목사는 이 일로 인해 8년간의 긴 옥고를 치른다. 김석창 목사는 이때 받은 잔혹한 고문의 여파로 평생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지냈다.

해방 후 1946년에는 꾀산교회(郭山教會)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 오랫동안 병고를 겪기도 하였다. 1947년 진갑을 맞이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곳에서는 공산당의 횡포로 앞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을 예견하고, 모두들 남쪽으로 월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자신은 교회를 위하여 교인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목자로서 끝까지 돌보아야 할 임무가 있음으로 월남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교회를 지켰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하자 유엔군 환영 행사를 주도한 김석창 목사는 유엔군이 철수하자 북한 공산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하며 순교하였다.

김석창 목사는 평북노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였다. 이는 지역 내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증거다. 나아가 김석창 목사는 1926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5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되어 총회장으로 많은 일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1963년 김석창 목사의 독립운동과 반공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광식 장로의 아버지인 故 김희철 장로는 가난한 목회자의 삶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 김석창 목사는 명철하고 은사가 돋보인 넷째 아들 김희철이 목사가 되기를 강하게 바랐지만 김희철은 결국 아버지 뜻을 어기고 장로가 된다. 목회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보아온 김희철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크



김광식 장로와 김사정 권사

게 빛나가지는 않았지만 목회자의 길은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이 평생의 짐이 된 김희철 장로는 평생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았고 자신의 만아들 김광식 장로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따르지 못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 김희철 장로가 할아버지 김석창 목사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않은 것처럼 김광식 장로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다.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연세대 신학과까지 진학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며 점점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얻는 대신 자신감을 잃었다. 그리고 우연히 도미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목회자의 길을 접었다. 이민자의 삶을 정착하고 살아오면서 여유 없는 삶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접은 것이다.

특별한 방법으로 따르는 아버지 뜻

할아버지의 뜻을 어긴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김광식 장로가 어긴 것이다. 김광식 장로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이 평생의 짐이요 부담이다.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공무원이 되었다. 다른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동안 살았다.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였다.

우연히 시작한 사역이 마약중독자 순화 사역이었다.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 그들이 그 마약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중독을 이기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었다. 열심히 돕고 섬겼다.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컸다. 한인 커뮤니티였지만 섬겨야 할 대상들이 주로 한인 2세 젊은이들이었다.

마약중독자 순화 사역에서 직면한 한계로 고민하다가 호스피스 사역에 눈을 뜨게 된다. 제대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건너가 샘물 호스피스에서 연수도 받았다. 200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 ‘엔젤스 크리스천 호스피스’라는 비영리 법인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의미있고 보람된 일이다. 환우에게 복음도 전하고, 환우의 천국 삶을 준비케 하는 사역이다. 호스피스 사역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육체적 섬김과 노동은 물론 감정 노동이기도 하다.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연과 간증을 남긴 호스피스 사역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

힘든 호스피스 사역을 돕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시점에 김광식 장로는 원목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광식 장로의 아내 김사정 권사가 간호사로 오래 근무한

LA 카운티 병원 원목실의 요청을 받은 것이다. 친분이 있는 병원 원목실 관계자의 추천과 권유로 시작한 원목실 사역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 사역을 제공한다. 예컨대 상담과 영적 돌봄을 제공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한다. 예를 들면 통역과 무보험자들을 소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일 등등 다양하다. 이런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전하며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김희철 장로님과 할아버지 김석창 목사님을 뵈면 면목이 생겼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김광식 장로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내어놓을 때에 기자는 눈물이 났다. 이토록 아름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장로가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김 장로는 40년 이상 섬겼던 나성영락교회를 떠났지만 나성영락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섬기는 기쁜우리교회도 김 장로의 기도제목이다. 더 빠르게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그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기자의 가슴이 먹먹했다. 진짜 예수쟁이의 기도요 소원이었다. 인터뷰 시간 내내 김 장로의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강태광 편집위원

하나님의
대표선수

할렐루야 축구단

2018 북중미 축구선교

Los Angeles | San Francisco

2018.07.22-08.06

2018. 07. 25 (Wed)

2018. 07. 29 (Sun)

2018. 08. 01 (Wed)

2018. 08. 03 (FRI)

2018. 08. 05 (Sun)

남가주살롬교회

상항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크로스웨이교회

오픈도어교회

코너스톤교회

문의 : T(714)904-0691

할렐루야축구단*
HALLELUJAH FOOTBALL CLUB

Drill
Footballers' Pathfinder

